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11.17.(화)/ 총 3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극지전략연구실 - 김엄지 실장(051-797-4776)/한다희 연구원(051-797-4633)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11회째 이어온 북극 국제협력의 장, '2026 북극협력주간' 개최

- 제11회 북극협력주간, 12월 7~9일 부산서 개최… 12월 6일까지 참가 사전등록 -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극지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이 오는 12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3일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된다.

* 북극 관련 정책, 과학연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해 온 비북극권 국가 유일의 북극 관련 종합행사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이번 북극협력주간은 '협력의 공간, 북극의 미래(Space for Cooperation, Future for the Arctic)'를 주제로 개최된다. 북극 관련 국내외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북극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첫째 날인 12월 7일에는 '정책·과학'을 주제로 ▲북극해정책대화 ▲북극과학협력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북극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과학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12월 8일에는 '경제·산업'을 주제로 ▲제15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한국-북극 경제협력 세미나 ▲북극항로의 미래: 안전운항, 기술혁신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세션에서는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과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기술혁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지역사회·교육'을 주제로 ▲부산광역시 주최

‘북극항로 미래를 열다’ ▲경상북도·포항시 주최 ‘대전환 시대, 북극권 자원·공급망 협력과 포항의 미래 대응’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북극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북극권의 변화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협력 가능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이 밖에도 북극곰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북극네컷사진, 북극항로 선박운항 및 해양안전 체험, 북극해운 AI 챗봇 소개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북극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 북극협력주간의 세부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www.korea-apw.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12월 6일(일)까지 사전등록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북극협력주간은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며 북극 관련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그간 축적해 온 협력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번 행사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극지전략연구실 한다희 연구원(dhhan@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 북극협력주간 포스터

